

광주시, 15개 기관·65개 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사업 따라 총 63억 투입해 통합환경 구축 자원 최적화로 이용료 연 3억 절감 2030년까지 단계적 전환 계획



광주광역시 시·자치구 등 15개 기관 65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예산 연 3억원을 절감했다. /광주광역시

광주시가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기반 통합환경을 구축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스템 운영에 한발 다가섰다.

광주광역시(시장강기정)는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15개 기관의 65개 정보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광주시는 민간클라우드 전환으로 연 3억원의 이용요금을 절감했다.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백업 용량 등 최적화 작업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도 자원 최적화를 독려하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이용요금을 줄였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돼 초기 구축 이후 지속적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원(리소스)을 최적화한 게 주효했다.

이처럼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으

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시는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교체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모니터링과 꾸준한 자원 최적화를 통해 자원간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지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 발급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상이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급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4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며, 5월 1일부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기존의 상이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일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 할 수 있으나, 급행버스는 무임승차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상이국가유공자는 신분 확인 후 급행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전상의 우려 등으로, 급행버스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어르신 급행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게 됐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정읍시 축산농가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정읍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라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종에 따라 12개월 이행을 기준으로 두당 한·육우는 2만 5000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나주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선정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원도심 국가유산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지정 구역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위주의 기존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재개

여수 밤바다를 더 화려하게 만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과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이 오는 26일 다시 찾아온다.

공연은 10월 26일까지 ▲낭만버스킹은 매주 금토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청춘버스킹은 매주 토요일(여름성수기 8주간 금요일 추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해양공원 3개소, 낭만포차, 남산공원 등 5개소에서 댄스, 무용, 어쿠스틱,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북도, 제조업 AI솔루션 실증·확산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와 공모 선정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투입 경북SW진흥본부서 AX랩 구축

경북도가 영남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150억)을 투입해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난,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제조 산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현장에 실증·확산한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영남권 각 시도는 지역별 중점산업인 ▲철강(경북) ▲기계부품(부산) ▲지

능형기계(대구) ▲화학(울산) ▲자동차부품(경남)을 대상으로 혁신적 제조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지역 간 교차 실증 및 AI솔루션 복합 실증을 초광역 협업과제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철강산업이 집중된 포항시를 중심으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업수요 맞춤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해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은 지역 전체 제조 산업 AI융합모델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경북SW진흥본부(포항테크노파크)에 지역 제조데이터 분석·가공 및 AI솔루션 개발을 위한 AX랩을 구축하고 5월중 공모를 통해 AI 기업과 실증을 원하는 제조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시,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 안전점검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로 체감도 ↑ 첨단 기술장비로 사각지대 최소화

부산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1일간 최근 사고발생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1219곳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원시설, 대형 공사장과 물류 창고, 대형 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등 10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를 진행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하며 각 기관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사물 인터넷(IoT)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특성상 육안이나 일반 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까지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이곳에 점검자의 실명도 공개해 안전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흥군, 나로호·누리호 실물 전시관 운영

내달 고흥우주항공축제서 선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주로 가는 생생한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시관에는 ▲한국형 과학탐사 로켓인 KSR-I, II, III,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KSLV-I, II(나로호·누리호) ▲위성을 탑재한 페이로드 어댑터 ▲비행 중에는 대기 마찰열과 압력변화로부터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페어링 ▲누리호 75톤 엔진 ▲누리호 2차 발사 때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성 모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나로호·누리호 실물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고흥군

델도 함께 전시되며,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형도 제작 전시해 우주로의 꿈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축제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참여하는 증강현실달 표면 체험 등이 함께 구성돼 우주항공 축제의 기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 136편 상영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려

국내 최대 단편영화제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41회 행사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영화의 전당 B 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뎀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영화 & 현실(Cinema & Reality)'로 116개국의 3682편이 출품돼 이 중 국제 경쟁 39편, 한국 경쟁 20편을 포함해 총 43개국 13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초청작이 아닌 국제 및 국내 경쟁작품 중에서 주빈국, 아시아 그리고 한국 작품 총 3편이 선정됐다. 개막작은 '다이빙'(이탈리아), '진짜 맹세해'(아시아), '내 어머니 이야기'(한국)로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개막식 사전공연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드론으로 그려는 '드론 드로잉 퍼포먼스 콘서트'를 반도네온 연주와 선보일 예정이며, 개막공연으로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주세피나 토레의 '시네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티아모(Tiamo)! 이탈리아!' 슬로건 아래 이탈리아의 다양한 단편 영화를 상영한다. 주빈국 프로그램은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단편영화를 아주 깊고 넓게 소개하는 것이다.

/부산=이도식 기자